

# 꽃을 보고 있는 현재가 내 인생의 '花(화)일라이트'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정원예찬

현진 지음

요즘의 산하는 온통 연꽃빛이다. 겨우내 숨 죽였던 새순들은 어느새 잎을 틔어 산과 들을 뒤덮었다. 연초록 물결을 풀어놓은 듯 맑고 투명한 빛같은 그 자체로 힐링을 선사한다.

자연은 때가 되면 그렇듯 어김없이 특유의 색을 풀어놓는다. 신록의 계절 4월, 계절의 여왕 5월은 1년 중 가장 푸른 기운이 넘치는 시기다. 형형색색의 화려한 옷을 갈아입는 가을보다도 봄이 더 아름다운 것은 특유의 생명력 때문이다.

모든 생명체는 아름답지만 이따금 자연이 배푸는 은전은 무엇에 비할 바 아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다 바라보는 산과 들은 그 자체로 한 폭의 수채화가 다가온다. 계절은 스스로 화가가 돼 세상이라는 캔버스에 풍경이라는 작품을 부려놓는다.

현진님의 '정원예찬'을 읽고 있으면 곳곳에서 반짝이는 사유의 글들을 만나게 된다. 13년간 사찰 정원을 가꾸며 느낀 사유의 단상들이 명료한 문장



으로 갈무리돼 있다. 군더더기 없으면서도 따스한 정감은 스님 글이 갖는 미덕이다.

이번에 출간된 '정원예찬'은 산사의 뜰을 가꾸며 수행을 해온 기록이자 세상과의 대화이다. 스님은 월간 '해인' 편집위원과 '불교신문' 논설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정주 마야사 주지를 맡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자와 정원'을 비롯해 '스님의 일기장', '꽃을 사랑한다', '좋은 봄날에 울지 마라' 등을 펴냈으며 산중에서 정원을 가꾸며 느낀 일상을 사전하고 있다.

책 제목이 말해주듯 스님은 수행처럼 가꾸는 정원을 통해 더러는 깨달음이 담긴 사유를, 더러는 위로가 담긴 응원의 말들을 건넨다. 흙을 만지고 꽃나무를 키우는 것은 노동을 넘어 순리의 과정을 따르는 일로 수렴된다.

저자는 "해마다 마중하는 봄이지만 여전히 봄꽃과의 해우는 설렌다"며 "그 어떤 이가 나를 이토록 가슴 뛰게 할 것인가. 하루라도 꽃들과 인사를 나누지 않으면 금세 시들해지는 이런 중세를 '정원 중독자'라 이름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정원은 "요동치게 하고 신명 나게 하는 활발한 수행처"라고 덧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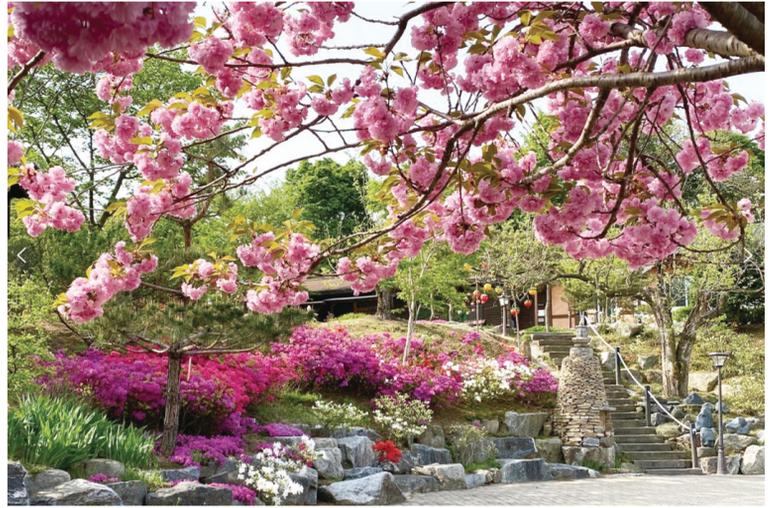
스님은 텃밭과 정원을 가꿀 수 있어 근면하고 성실할 수 있었다. 미국의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전국을 이렇게 정했다고 한다. '천국이란 채소를 내

다 팔 수 있는 시장이 가까이 있는 곳, 그곳 정원에서 나이를 잊은 정원사가 흙을 일구는 곳'이라고.

손바닥만한 텃밭을 소유한 이는 천국에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다. 토머스 제퍼슨은 후일 식물들의 생태를 담은 '가든 북'을 남겼는데 후일 정원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정원을 가꾸며 살았던 삶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스님은 정원을 일컬어 '땅에 씨앗을 심고 시간의 시를 쓰는 곳'이라 정의한다. 사실 나무 심는 일을 시를 쓰는 것과 유사하다. 각각의 시행이 결합해 하나의 작품을 이루듯 저마다의 꽃과 나무가 모여 다채로운 그림이 된다. 시간이라는 나무가 자라는 곳이기에 정원은 '시간의 미학'인 것이다.

책에는 이렇듯 자연이 전하는 향기로운 깨달음으로 가득하다. 특히 봄날의 낙화가 주는 의미는 깊고 넓다. "권력을 따르지 말고 꽃을 따르라"는 말은 절정이 지나면 반드시 낙화의 시간도 다가온다는 뜻이다. 아울러 꽃 피고 지는 과정이 모두 삶의 연속이기에 수용하고 이해하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얘기도 한 문장 한 문장은 울림과



저자는 꽃과 나무가 모여 다채로운 그림이 되는 정원은 다양한 사유와 깨달음을 준다고 한다.

<담앤북스 제공>

의미로 연계돼 울창한 사유의 숲을 이룬다. 스님이 정원에 몰두하는 것은 '정원을 통한 전법'의 차원이기도 하다. 물론 정원 포교라는 말은 아직은 낯설다. 그러나 "꽃과 나무를 가꾸며 자연에 기대어 휴식하고 치유하는 길"을 알려주는 역할은 설법 못지 않은 의미로 확장된다.

하는 이들이 많은 요즘이다. 스님의 말은 따스한 응원의 말로 다가온다. "이제는 힘들 때 괜히 자신에게 힘내라고 주문하지 마시라. 좀 느릿느릿 쉬어가도 되는 나이이다." 그리고 지금 꽃을 보고 있는 현재가 인생의 절정이다. "지금이야 내 인생의 화(화)일라이트!"

<담앤북스·1만7200원>

여러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부쩍 힘들어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내가 사랑한 예술가들

마이클 페피아트 지음·정미나 옮김

'그림 그리는 일은 내게 구원과 같다.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지금 보다 더 불행했을 테니까.'

평생을 가난과 고독 속에 살았던 빈센트 반 고흐(1853~1890)가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의 일부다. 올 초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불멸의 화가, 반 고흐전'은 40만 여 명이 가까운 관람객을 동원했다. 오랜 세월, 대중의 사랑을 받는 데에는 천재적인 재능에도 햇볕을 보지 못했던 그의 드라마틱한 삶이 크다. 10년 동안 화가로 살면서 단 한점의 그림 밖에 팔지 못하고, 결국 권총 자살로 37살이라는 짧은 삶을 마감했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어 행복했다'는 그의 고백은 깊은 울림을 준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미술사가이자 평론가인 마이클 페피아트(Michael Peppiatt)은 '내가 사랑한 예술가들'에서 고흐를 비롯해 20세기를 대표하는 예술가 27인의 인간적인 면모와 치열한 예술세계를 입체적으로 그려낸다. 60여년 간 미술현장에서 수많은 예술가들을 지켜 본 그는 이들의 결과물인 '작품'보다 창작의 고통과 예술가의 열망, 집착 등 '내면'에 주목한다. '예술작품은 작가들의 자서전'이라고 정의한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수십년 간 우정을 나눈 아일랜드 출신의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과의 스토리는 흥미롭다. 기이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감도는 그의 그림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과 동성애자로서의 소외감에서 시작됐고, 달리의 도발적인 에로티시즘은 유년기의 고통과 깊이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책은 단순히 작품 분석에 그치지 않고, 예술가의 성장환경, 삶의 태도 등을 살펴 개인적인 삶이 어떻게 예술과 얽히는 지 보여준다. 책을 덮으면 '장작'의 삶의 격랑에 맞서는 가장 우아한 방법'이라는 그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디자인하우스·2만5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나의 오늘은 내일로 이어지지 않는다

브로니 웨어 지음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만일, 오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가장 후회할 것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삶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이 남긴 가장 솔직한 말을 모은 책 '나의 오늘은 내일로 이어지지 않는다'가 출간됐다.

간병인 브로니 웨어는 수년간 말기 환자들과 함께하며 죽음을 앞둔 이들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고백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였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스스로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였다.

책은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끝내는 삶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경계에서 필요한 건 거창한 결심도, 대단한 변화도 아닌,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을 잠시 들여다보는 시간임을 일깨워준다.

저자는 "간병인으로 일하며 만난 환자 중 몇몇은 내게 자신들의 깨달음을 세상에 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며 "그들은 후회를 안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을 동반하는지 사람들이 온전히 이해하길 원했으며 더 나아가 자신들이 가지지 못했던 용기를 다른 누군가는 발견하길 바랐다"고 전했다.

책은 전 세계 32개 언어로 번역 출간됐으며, 수백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영화화도 진행 중이다. 저자는 현재 호주의 한적한 시골에서 지내며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용기'의 의미를 전하는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책읽는 수요일·1만68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브랜드, 결국 이야기다

김블베(김성민) 지음

젠물 몬스터, 카멜 커피, 노트리 도넛, 파이브 가이즈... 매일 같이 새로운 상품이 쏟아지는 시대다. 그 속에서도 살아남는 이름들이 있다. 비결은 바로 '브랜드'이다. 브랜드(brand)란 어떤 상품이나 회사의 상표, 표지를 일컫는 말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욱 빠르고 치열해진 마케팅 전쟁 속에서 고객들에게 그 기업의 가치를 상징한다. 즉 '왜 수많은 상품 중 하필 그 기업의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가?'라는 고객의 물음에 답하는 방식이 바로 브랜딩이라는 것이다.

팬데믹 시기에도 꾸준한 성장을 이룬 공유 오피스 브랜드 '집무실(執務室)'의 설립자 김블베가, 15년간의 경험을 한 권에 담아 '브랜드, 결국 이야기다'를 펴냈다.

공유오피스 집무실은 '집 근처 사무실'을 표방한다. 퇴근 후 커리어를 만들어보려는 직장인이나 프리랜서, 대학생, 1인기업 등을 대상으로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제2의 일론 머스크나 마윈과 같은 대단한 포부가 없더라도 괜찮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상담, 전화국, 철도 등 지역 콘셉트를 강조해 '일하러 가고 싶은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수많은 공유오피스 브랜드 중에서도 나름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저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BSA (Brand Story Architecture)'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BSA는 브랜드명, 콘셉트, 파사드, 존, 미장센, 바이브 등 6개 단계로 구성된 '브랜드 이야기 설계 도구'다. 저자는 마치 건축물을 짓듯 브랜드의 이야기를 정교하게 쌓아가야 비로소 고객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제품의 질만으로는 고객의 선택을 이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저자는 브랜드가 고객의 마음속에 어떤 기억으로 남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위즈덤하우스·1만7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그린 알로에

#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받은 광고를 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매원 : (주)그린알로에